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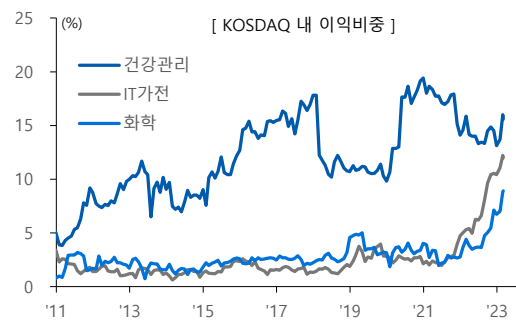


아직은 과열이 아닌 KOSDAQ

1. 자격이 있는 2차전지의 강세

- 연초 이후 KOSDAQ 강세의 40%는 2차전지 관련 업종이 주도한 것으로 산출
-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에서도 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의 KOSDAQ 내 이익 비중도 확대되는 중
- 따라서 2차전지의 강세는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 이로 인한 KOSDAQ 강세를 기율기만으로 과열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

2차전지 관련 업종의 증시 내 이익비중 확대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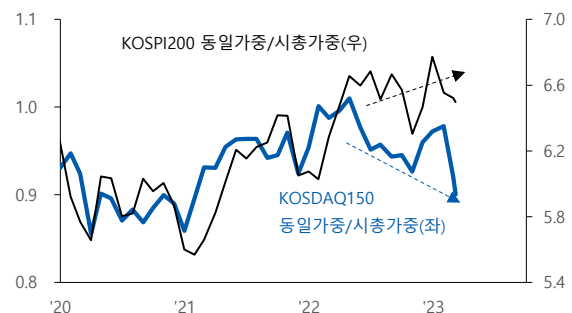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쓸림현상, 과열에 다가서고 있을 가능성

- 아직까지는 KOSDAQ을 과열로 보기 어렵지만, 쓸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점차 과열에 접근 중임을 반증한다는 판단
- 예컨대 최근 중소형주 강세 국면에서 미국 S&P500이나 한국 KOSPI200에서 모두 동일가중지수가 견조. 반면, KOSDAQ은 시총 상위주 중심 강세
- 수급 측면에서 KOSDAQ 거래대금이 KOSPI의 1.2배를 상회했다는 점도 반전의 시점이 다가올 가능성을 참고할 필요

한국과 미국증시의 동일가중지수 견조,
KOSDAQ에서만 시가총액 상위주 강세 뚜렷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DAQ의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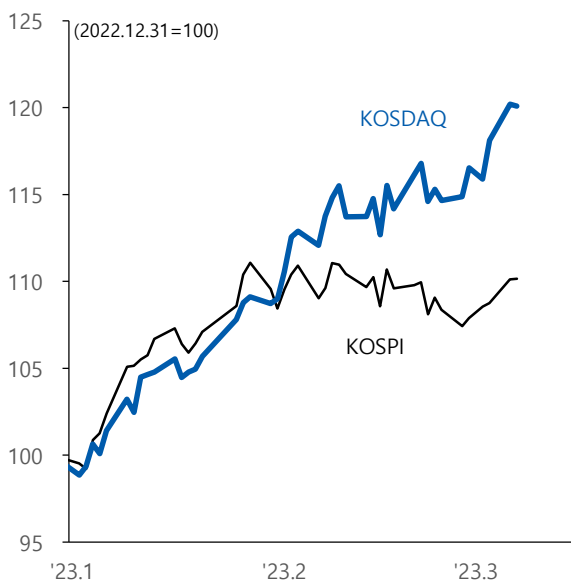
KOSDAQ 지수의 상승세가 파죽지세다. 금주까지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우 주간 기준 무려 10주 연속 상승이다. KOSDAQ 지수가 10주 연속 상승했던 경우는 2015년 1~3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KOSPI 대비 KOSDAQ의 상대강도 측면에서도 KOSDAQ의 강세가 돋보인다. KOSPI 지수는 1월말 이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2,400pt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KOSDAQ 지수는 800pt를 회복하며 연초 이후 약 20%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KOSDAQ 지수의 강세는 2차전지가 주도한 것으로 집계된다. KOSDAQ 지수 내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IT가전(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과 화학(에코프로, 나노신소재 등) 업종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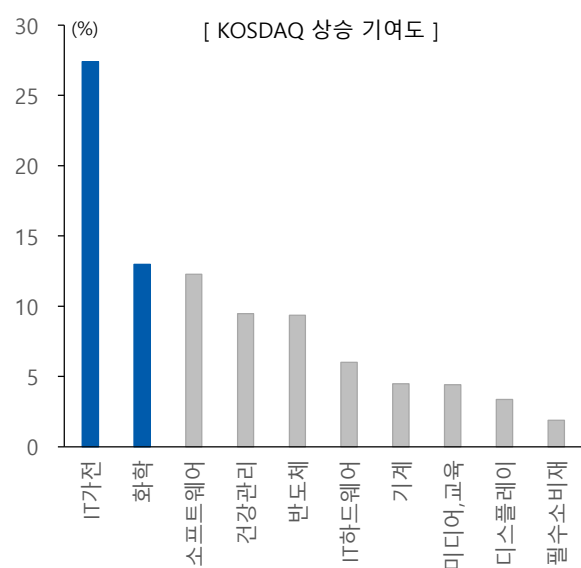
IT가전 업종은 연초 이후 전일(3/7일)까지 56% 올랐고, 화학 업종은 약 85% 급등했다. 종합해보면 IT가전 업종과 화학 업종의 KOSDAQ 지수 상승 기여도는 약 40% 가량인 것으로 산출된다.

[차트1] 1월말 이후 쉬어가고 있는 KOSPI 지수와 달리 연초 이후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는 KOSDAQ 지수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DAQ 강세의 배경: 2차전지 관련 업종인 IT가전과 화학 업종이 올해 KOSDAQ 강세의 약 40% 기여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자격이 있는 2차전지의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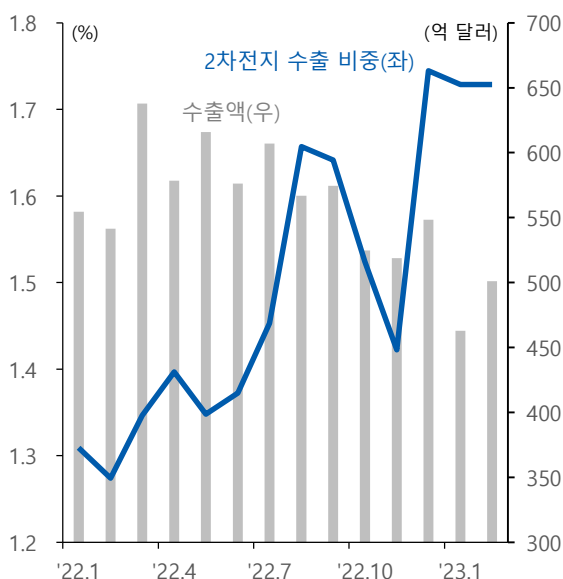
KOSDAQ 강세를 이끌고 있는 2차전지의 상승세는 2월 이후로 두드러졌는데, 예상보다 기울기는 가팔랐지만 결국 상승할 만한 자격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탐다운 관점에서 본 업종별 비중의 변화 덕분이다.

한국 수출은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2월 수출에서도 2차전지는 전년동기비 25% 수출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 내 비중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증시 내에서 차지하는 향후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의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KOSDAQ뿐만 아니라 KOSPI에서도 그렇다. 이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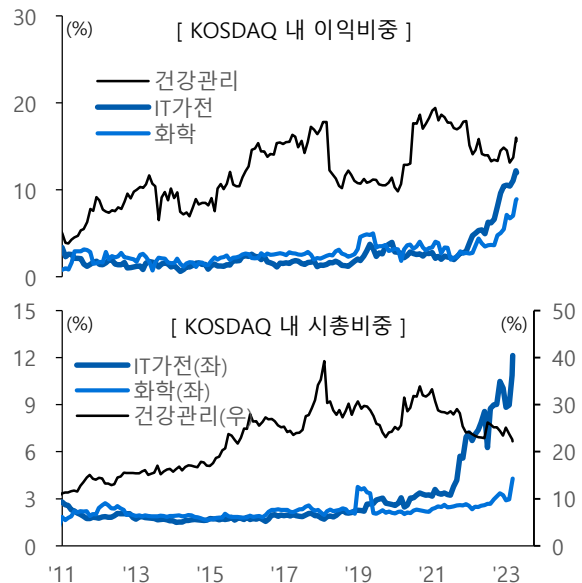
즉 성장이 희소한 시점에서 2차전지의 강세는 이유 있는 강세였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한 KOSDAQ의 강세가 최근 기울기가 가팔랐다는 이유만으로 과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트3]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 속에서도 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점차 비중을 확대하는 중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차전지 관련 업종의 증시 내 이익비중 확대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도 확대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3. 쏠림현상, 과열에 다가가고 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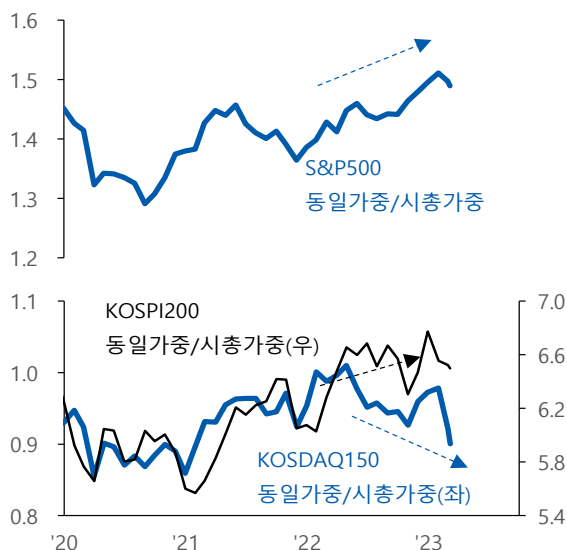
정리해보면, 2차전지 상승세에 힘입은 KOSDAQ의 강세라는 현상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과열로 볼 근거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차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위 쏠림현상 때문이다. 특정 업종이나 종목으로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중소형주 강세 국면에서 미국 S&P500의 시총가중보다 동일가중지수가 우수했다. KOSPI200의 시총가중보다도 동일가중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이다.

반면 KOSDAQ에서는 KOSDAQ150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동일가중지수가 부진하다. 시가총액 상위 특정종목으로 상승세가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쫓아가는 대응은 리스크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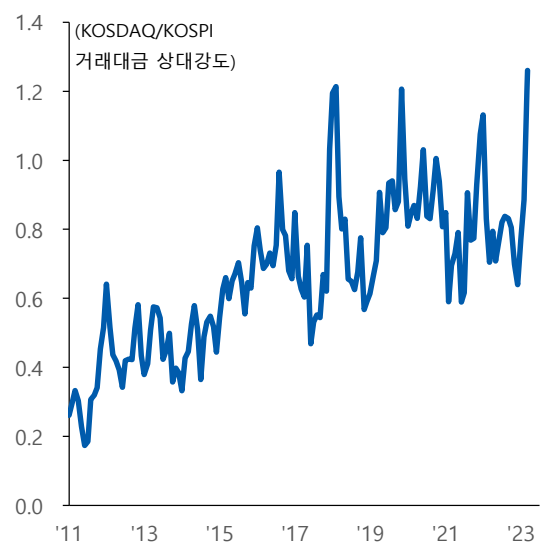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미 KOSDAQ의 거래대금이 KOSPI 거래대금의 1.2배를 상회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20년래 최고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반전되는 시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차트5] 한국과 미국증시의 동일가중지수 견조, KOSDAQ에
서만 시가총액 상위주 강세 뚜렷



자료: Bloomberg,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KOSDAQ 거래대금 KOSPI 대비 가파르게 증가,
단기 수급상 과열 신호 우려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